

한나라, '경선포기 종용' 논란 가열

김용갑 "원희룡·고진화 경선 접어라" 원희룡 "해당성 발언... 당 망하게 해" 정체성 싸고 전여옥-소장과 설전도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앞두고 특정주자에 대한 경선포기 종용과 이에 맞선 '정체성'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당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당과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는 고진화 의원의 탈당을 공개 요구한 뒤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극우보수 성향의 김용갑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원희룡 고진화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경

선이 우습게 되고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고진화 의원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체성, 노선에 역행하면서 당론에 반대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결말하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한나라당 입장을 공개 요구한 뒤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극우보수 성향의 김용갑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원희룡 고진화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경

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영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지사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 의원모임 수요 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한나라당에 원하는 것은 경제회복 플러스 사회통합으로,당이 너무 획일화된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오히려 대선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경선포기를 요구받은 원희룡 의원은 "김용갑 의원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해당성 발언은 오히려 당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며 "색깔론에 근거한 반공노선, 배타적인 노선을 걸으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일 경북 김천 직지사를 방문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가운데)이 명부전에 봉안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름·부모 관련 비방 참겠다"

이명박, TK 방문 박 전 대통령 위패 분향 눈길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았다. 이 전 시장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1월 영남대 특강 이후 두 달여만으로, 영남지역 패권을 다투고 있는 당내 대권리더들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는 동시에 최근의 지지율을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경북 김천의 직지사를 찾아 주지인 성용 스님 등과 함께 경내를 둘러본 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원근스님과 1시간 가까이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특히 직지사 방문에서 박 전 대표의 부모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셔놓

은 명부전에 들러 직접 분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초청특강에서 최근 인터넷 등에서 떠돌고 있는 자신의 이름 및 부모와 관련된 소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제 이름이 일본식이며 제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조총련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제가) '김정일의 뭐다'라는 말까지 나오겠다"면서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아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상기하며 참기로 결심했다"고 거듭 말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박사모'의 정광호 대표가 언

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전 시장의 이름은 '아키히로'이며 출생지도 속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에 대한 네티즌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내 일부 대선주자들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분들과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 봐야겠다"면서 "당의 스펙트럼이 넓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별 가능성에 대해 "저 자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호남 분들이 높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다음 선장은 정세균

인선위, 전대서 합의 추대키로

진로가 불투명한 열린우리당의 후임 당의장에 정세균 의원 합의추대론이 무르익고 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는 급명간 회의를 소집해 정 의원을 2.14 전당대회에서 당의장 후보로 추천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1일 "의장 후보로 정 의원이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정 의원이 의장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원내대표와 당의장을 역임했던 정 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마친 뒤 지난해 말 당에 복귀했다. 우리당은 전날 전·현직 지도부를 지낸 중진의원 가운데 김원기 이해찬 이용희 장영달 김한길 문희상 신기남 유재건 이미경 의원 등 9명으로 인선위를 구성했다. 또한 인선위는 당 의장과 별도로 선출되는 4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인선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인선위는 일단 당내 각 계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을 지휘할 책임을 맡게 될 신임 의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배분식으로 당 지도부를 구성할 경우 의장의 통솔력이 약화되는 만큼 신임 의장의 의중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를 추대하자는 것. 당 관계자는 "현재 김근태 의장도 계파안배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또 다시 계파안배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경우 신임 의장의 행보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지역과 선수, 신구조화 등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인선위는 최고위원 인선시 각 계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 의원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장영달(오른쪽) 신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방문해 취임인사를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덕구, 與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인 정덕구 의원이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우리당의 연세태당 움직임 속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는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예전의 자리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력하고자 한다"며 "정치적 색깔에서 벗어나시장과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 경제 문제 연구에 몰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으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아 원내에 입성했다. 정 의원의 사퇴로 여당의 여성조직인 우리여성리더십센터 신 명(61.여) 소장도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정 의원의 사퇴로 인해 의석(134석) 수에 변동은 없으나, 최근 집단체당 움직임과 맞물려 여당의 분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민노 노회찬, 25일 대선출마 선언

민주노동당 예비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1일 "오는 25일 대선후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모두 심판하고 3강 구도를 형성해 내년 총선에서 진보·보수의 양강 구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노당과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노 의원은 이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 조직과 활동방식, 정책노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당 정체성을 빼고 다 바꾸자"면서 "당 혁신의 기수가 돼 당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곽조직인 '새 세상을 꿈꾸

는 사람들(새꿈들)'에 참여한 87명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 모집, 25일 출마선언 때 이들과 함께 새 시대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시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87'은 87년 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숫자로, 향후 새로운 20년에 사회 주역이 될 직업군을 중심으로 상정성, 생활 조건 등을 고려해 87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출마선언 직후 새꿈들 구성원들과 함께 민생투어 성격의 '새 세상 대장정'을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곡성군 공고 제2007-39호
곡성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곡성군 옥과면 소동리 427-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0일
곡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 용도지역

당 초	변 경
농림지역(78,569㎡) 관리지역(163,994㎡)	계획관리지역(242,563㎡)

○ 군계획시설
 - 체육시설(신설):(9홀)골프장(242,563㎡)

2. 군관리계획변경도서: 게재생략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07년 2월 5일~2007년 2월 24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곡성군 지역진흥과

4. 설명회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비 고
2007. 2. 8. 14:00	옥과면사무소 회의실(2층)	이해관계인	

5. 기타사항 : 공람 및 설명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7. 2. 24까지 곡성군 지역진흥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진흥과(☎061-360-8432)로 문의바람.

전액 무료 국비훈련생 모집

모집대상: 정보통신설비
 2007년 1월 16일부터(30명 정원 한도내 선착순 모집)
 취업지역: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모집대상: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전대학(방송대 포함)-이전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비전향성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일반주부(3개월전에 구직등록한 주부)
 -수강료 전액 무료
 -교재 무료 제공
 -교통비 지급(매월 50,000원~6개월 총 300,000원)
 -우선선정자중수당 지급(매월 200,000원~6개월 총 1,200,000원)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률 100% 취업

모집방법: 학교교무실 상담 및 방문(간접지원카드 지참)
 문의전화: 224-4560, 224-4580

특전: -전액무료
 -농산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일81, 518
 -문화관광(구 도화)
 -진월07, 칠년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동인81, 문흥80, 두일82, 518, 1187
 -예술의거리 입구
 -동인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 위치: 전남여고건립 김재규경향학원 내 ★ http://www.hjedu.co.kr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무료문제풀이 개강 2월 1일 = 아간편 진행 =

• 100% 출석시, 수강료100% 환불 • 문제풀이 수강료 : 100,000원

김종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300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60,000원, (개강: 2007년 4월 5일(목), 4월 12일(목) 18:00~22:00), 교수: 김종규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편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2월 1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2월 1일(목)

의치의학, 현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2월 1일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현문/현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9088